

저자 (Authors)	金和經
출처 (Source)	<a href="#">진단학보</a> , (67), 1989.6, 133-151 (19 pages) <a href="#">THE CHIN-TAN HAKPO</a> , (67), 1989.6, 133-151 (19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진단학회</a> The Chin-Tan Socie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74174">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74174</a>
APA Style	金和經 (1989). 首露王 神話의 研究. 진단학보, (67), 133-15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29 16:58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首露王 神話의 研究\*

金 和 經

(嶺南大 敎授)

##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 駕洛國記의 성격 |
| III. 首露王 神話와 즉위 의례 | IV. 맺음말      |

## I. 머릿 말

《三國遺事》 권 2의 〈駕洛國記〉에 실려 있는 首露王神話<sup>1)</sup>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크게 세개의 갈래로 나누어진다. 즉 (1) 이것을 가지고 가락국의 역사를 재구하려고 했던 역사적인 연구와, (2) 龜旨歌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 문학적인 연구, (3) 고대의 祭儀와 關係시켜 설명하려고 했던 민속학적인 연구가 그것이다.<sup>2)</sup> 그렇지만 (1)에서는 신화적인 문맥을 그대로 역사적인 문맥으로 이해하려고 했으므로 무리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수 없었고, (2)에서는 龜旨歌를 해석할 때에 수로왕의 탄생 단락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 신화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3)에서는 이 신화에 내포되어 있는 재생 모티브만을 부각시키는 데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의 문제점은 그 관점을 달리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극복 방안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1)의 경우는 먼저 신화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속에 용해되어 있는 역사적인 요소를 찾아내야 하고, (2)와 (3)의 경우는 이 신화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단편적으로 연구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구명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후자의 문학적인 연구와 민속학적인 연구에 대한 이러한 지적은, 전체는 부분들의 단순한 總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전체론적인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두루 알다시피 전체론적인 연구 방법은 1920년대 후반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언어학과 심리학, 문학, 인류학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왔고, 근래에는 신화학 분야에까지 적용되기에 이르렀다.<sup>3)</sup> 이와 같은 전체론적인 연구 태도를 취한다면, 각각의 단락들은 독립적으로 존

\* 이 논문은 1988년도 문교부 지원 학술진흥재단의 자유 공모과제 학술 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三國遺事》에 전해지는 수로왕 신화는 (1) 가락국기의 모두(冒頭)에 실려있는 것과 (2) 가락국기왕력편의 앞에 운문의 형태로 된 것, (3) 어산불영조(魚山佛影條)에 실려 있는 것 등 세 개의 이본이 있다. 이 이본들 중에서 비교적 마멸이 심하지 않은 것이 (1)의 자료이므로, 본고에서는 이것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2) 김영일 : 1987, pp. 5~7.

3) A. Dundes ; 1980, pp. 31~39.

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로왕 신화를 이루는 유기적인 연결체들이라는 전제가 성립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제 아래서 기존의 민속학적인 연구 성과를 한층 더 발전시켜 이 신화 전체가 고대 제의의 구전 상관물(oral-corelative)이라는 사실을 구명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의란 왕들의 즉위 의례(coronation ceremony)를 지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로왕 신화는 즉위 의례의 구전 상관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고대 국가의 왕들이 어떠한 즉위 의례의 절차를 거쳐 왕위에 올랐던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단지 몇 개의 건국 신화들과 왕들의 始祖廟 참배 기록들 속에 단편적인 잔영이 남아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의 부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서 조사·보고된 민족지(ethnography)의 자료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의 다이조우사이(大嘗祭)와 遼 나라의 柴册儀, 인도의 즉위 의례 등의 자료들을 이용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여 수로왕 신화가 왕들의 즉위 의례의 구전 상관물이라는 사실을 구명함과 동시에 한국의 고대 국가에서 왕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행했던 즉위 의례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 즉위 의례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고찰하는 일이 본연구의 목적이 라는 것을 미리 밝혀 둔다.

## II. <駕洛國記>의 성격

수로왕 신화가 즉위 의례의 구전 상관물이란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신화가 실려 있는 <駕洛國記>가 어떤 성격을 가진 책이었던가 하는 문제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연이 《삼국유사》를 저술하면서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한 <駕洛國記>의 원본은 「高麗 文宗朝 大康年間에 金官知州事 文人이 지은 것」<sup>4)</sup>이다. 이 책에 대해 이 병도는 「대부분 신빙키 어려운 전설적인 기재로 덮여 있고, 撰者인 문인이란 인명인지 보통 명사로서의 문인이란 말인지 불분명하다」<sup>5)</sup>고 하여 사료로서의 신빙성 여부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렇지만 「建安 4년 乙卯에 처음 이 사당을 세운 때부터 지금 임금께서 즉위하신 지 31년만인 大康 2년 丙辰까지 도합 878년이 되었다」<sup>6)</sup>라는 기록으로 보아 이 책이 지어진 연대가 A.D. 1076년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다음과 같은 기록들로 보아 이것이 어떤 성격을 지닌 책이었던가를 추찰할 수 있다.

### [자 료 1]

① 그의 아들 거등왕으로부터 9대손인 구형왕까지 이 묘에 배향하고, 매년 정월 3일과 7일, 5월 5일

4) 文廟朝大康年間 金官知州事 文人所撰也. 일연 저, 최남선 편 : 1946, p. 108.

5) 이병도 : 1976, p. 314.

6) 自建安四年乙卯始祖 逮今上御圖三十一載 大康二年丙辰 凡八百七十八年. 일연 저, 최남선 편 : 1946, p. 115.

8월 5일과 15일에 꾸집하고 깨끗한 제물을 차려 제사를 지내어 대대로 끊이지 않았다.

- ② 이에 그 옛터에 사자를 보내서 묘에 가까운 上田 30경을 供營의 밑천으로 하여 왕위전이라 부르 고 본토에 소속시키니, 수로왕의 17대손 廣世級干이 조정의 뜻을 받들어 그 밭을 主掌하여 해마다 명절이면 술과 단술을 마련하고 떡과 밥, 차, 과일 등 여러 가지를 갖추고 제사를 지내어 해마다 끊이지 않게 하고, 그 제사날은 거동왕이 정한 연중 5일을 변경하지 않으니, 이에 비로서 그 정성 어린 제사는 우리 가락국에 맡겨졌다.
- ③ 신라 말년에 충지잡간이란 사람이 있어 금관고성을 공취하여 성주장군이 되었다. 이에 영규야간 이 장군의 위엄을 빌어 묘향을 빼앗아 함부로 제사를 지내더니, 단오를 당해서 고사하는데 공연히 대들보가 부러져 치어 죽었다. ……중 략…… 규림이 대를 이어 제사를 지내오다가 나이 88세에 죽으니 그 아들 간원경이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단오날 알묘제 때에 영규의 아들 준필이 또 밭 광하여 사당으로 와 간원이 차려놓은 제물을 치우고 자기가 제물을 차려 제사를 지내는데 三獻이 끝나지 못해서 갑자기 병이 일어나 집에 돌아가서 죽었다.
- ④ 순화 2년에 김해부의 量田使 중대부 조 문선이 올린 장계에 「수로왕의 능묘에 소속된 밭의 면적이 많으니 마땅히 15결을 가지고 전대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 나머지는 부의 역정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중 략……量田使가 또 거듭 아뢰니 조정에서도 좋게 여겨 그 반은 능묘에서 부치고 반은 향인 역정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하였다. 節使가 조정의 명을 받아서 반은 능원에서 부치게 하고 반은 부에서 부역하는 戶丁들에게 주게 하였다. 일이 거의 끝나자 몹시 피곤해지더니 홀연히 하룻밤 꿈에 7·8명의 귀신이 밭갈과 칼을 가지고 와서 「너에게 큰 죄가 있어 목베어 죽여야겠다.」고 하였다. 量田使는 형을 받고 몹시 아프다고 하면서 놀라 깨자 이내 병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고 밤에 도망을 치다가 그 병이 낫지도 않은 채 걸문을 나서면서 죽어 버렸다. 이 때문에 量田都帳에는 그의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

(밑줄은 필자가 그은 것임)

이 자료는 수로왕 신화와 그의 치적, 그가 죽은 뒤에 廟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기술한 다음에 이어지는, 首露廟의 제례에 얽힌 기록들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부분에는 그 밖에도 묘를 둘러싸고 벌어진 몇 가지의 기적들이 더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당시의 사람들이 수로묘를 얼마나 신성시하고 외경시했었던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인용한 자료 1을 통해서 당시대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 태도와 함께, 수로묘에 대한 祭禮는 그의 아들 거동왕 때부터 시작하여 이 책이 저술된 고려 문종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사실과, 또 그 사이에 몇 번인가 그것의 변천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7) ① 自嗣子居登王泊九代孫仇衡之享是廟 須以每歲孟春三之日 七之日 仲夏重五之日 仲秋初五六日十五之日
- ② 仍遣使於黍離之趾(納)近廟上上田三十頃 爲供營之資 號稱王位田 付屬本土 王之十七代孫廣世級干祗稟朝旨 主掌厥田 每歲時釀醴 設以餅飯茶菓庶羞等奠 年年不墜 其祭日不失居登王之所定年內五日也 芬苾孝祀 於是乎在於我
- ③ 新羅季末 有忠至匪干者 攻取官宦高城 而爲城主將軍 奚有英規阿干 假威於將軍 奪廟享淫祀 當端五而致告祠 堂梁無故折墜……中略……圭林繼世奠爵 年及八十八歲而卒 其子間元脚 續而克履 端午日謁廟之祭 英規之子俊必又發狂來詣廟 俾徹問元之奠 以己奠陳享 三獻未終 得暴疾 歸家而斃
- ④ 淳化二年 金海城量田使 中大夫趙文善申省狀稱 首露陵王廟屬田結數多也 宜以十五結舊貫 其餘分折於府之役丁……中略……使又申省 朝廷然之 半不動於陵廟中 半分結於鄉人之丁也 節使受朝旨 乃以半屬於陵園 半以支給於城之徭役戶丁也 幾臨事畢 忽一夕夢見七八介鬼 神執縲索 握刀劍而至 云備有大愆 故加斬戮 具使以謂受刑而慟楚 驚懼而覺 仍有疾瘵 勿令人知之 寤遁而行 其病不問渡關而死 是故量田都帳不著印也. 일연 저, 최남선 편 : 1946, pp. 113~116.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들로부터 一然의 《三國遺事》에 抄錄된 〈駕洛國記〉의 원본은 수로묘에 보관되어 오던 제례에 관한 기록이었던가, 아니면 이러한 기록들과 밀접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대상물에 연루되어 전해지고 있던 이야기들을 취합·정리한 책이었을 것이라는 추단이 가능해진다. 만약 이러한 추단의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단락 ①에서 거동왕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연중 5회에 걸친 제례가 제각기 어떤 종류의 것이었을까 하는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생긴다.

그런데 진 수의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에는 「매년 5월에 씨를 다 뿌리고 나면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술을 마시고 놀아 밤낮을 쉬지 않았다」<sup>8)</sup>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뿌린 씨앗이 잘 자라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기를 기원하는 播種祭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5월에 행하던 수로묘의 제례는 민중들이 거행하던 이 파종제가 궁중의 제의로 상승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또 8월에 행하던 제례는 오늘날도 추석이라고 하여 햅쌀로 송편을 빚어 조상에게 茶禮를 지내고 밭초와 성묘를 하는 풍속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추수 감사제적인 성격을 지녔었던 것 같다.

한편 정월에 거행하던 제례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락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었고 경제의 형태도 비슷한 농경 생활을 영위하였던 신라의 경우를 참조하기로 한다.

金富軾의 《三國史記》의 新羅本紀 王歷篇에는 「친히 시조묘에 제사하였다(親祀始祖廟)」나 「시조묘에 배알하였다(謁始祖廟)」, 또는 「친히 신궁에 제사하였다(親祀神宮)」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렇게 시조묘나 신궁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정월의 경우가 15회, 2월이 20회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월과 2월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 제례가 신춘에 그 해의 풍농을 기원하면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탁을 물어보아 새해의 대책을 세우는 豫祝祭적인 성격이 강했었다는 것을 말한다. 또 이 제례는 왕의 즉위 원년에 행해진 것이 4회, 2년째가 27회, 3년째가 9회로 되어 있어, 「신라왕의 즉위 의식에는 시조묘 내지는 신궁에 제사를 지내는 의례가 새해의 예축제를 확충하여 행해지고 있었다」<sup>9)</sup>는 추단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예축제가 즉위 의례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신년의 도래나 신왕의 즉위가 새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즉 새로운 우주 창조의 반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환연하면 해의 종말과 새해의 기대나 전왕의 죽음과 신왕의 즉위는 카오스(Chaos)로부터 코스모스(Cosmos)로 옮겨가는 신화적인 순간의 반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sup>10)</sup>, 예축제 시에 즉위 의례가 행해졌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신라의 경우를 참조한다면, 가락국에서 거행되던 정월의 제례도 예축제적인

8)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群聚歌舞 飲酒盡無休. 진수 : 1975, p. 852.

9) 井上秀雄 : 1978, p. 61.

10) M. Eliade ; 1954, p. 54.

성격을 띄는 것으로, 즉위 의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하지만 자료 1의 단락 ①과 ②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매년 행해지던 예축제 때마다 즉위 의례가 거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즉위 의례라는 것은 새로운 인물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락국에서도 신왕이 등극을 하면 신춘의 예축제 때에 그의 즉위 의례가 행해졌을 것이라는 추론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수로왕 신화는 왕들이 즉위를 할 때에 거행되던 의례가 줄거리를 지닌 이야기로 화해서 전승되어 왔을 것이라는 본고의 전제는 상당한 타당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고, 또 <駕洛國記>가 수로묘에서 행해지던 제의와 깊은 관련을 가진 문헌이었을 것이라는 앞에서의 추단도 한층 더 확실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수로왕 신화와 즉위 의례

수로왕 신화는 수로의 신성성(divinity) 확보를 이야기하는 전반부와 그의 즉위 과정을 이야기하는 후반부로 이대별된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전반부는 후반부를 성립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된다. 즉 이 신화는 수로가 왕위에 올라 <나라>라는 소우주가 창조되기 전의 혼란 상태를 극복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줄거리로 엮여져 있어서 우선 왕위에 오를 인물의 등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성성을 가진 건국주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수로왕 신화의 이러한 체제상의 특징에 착안하여 이 신화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 31. 건국주의 신성성

그러면 건국주가 생래적으로 신격을 획득하고 태어나는 전반부의 내용부터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 [자 료 2]

- ① 개벽한 이래로 이곳에는 아직 나라의 이름도 없었고, 또한 군신의 칭호 따위도 없었다. 그저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귀간 등의 9간이 있을 뿐이었다. 이들이 곧 추장이 되어 백성들을 통솔했는데, 일백 戶에 칠만 오천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산야에 (흩어져) 살면서 우물을 파서 물마시고 밭을 갈아 양식을 했다.
- ② 마침 후한 세조 광무제 전무 18년 임인 3월의 禊浴日에 사는 곳 북쪽 구지——이것은 봉우리의 이름인데 십봉이 엮드린 형상과 같았으므로 이른 것이다——에서 수상한 소리와 기척이 있더니 부르는 소리가 났다. 이삼백 사람이 이곳에 모이니 사람 소리 같으면서 그 형상은 숨기고 그 소리만 내어 가로되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였다. 9간 등이 「우리들이 있습니다」고 하자, 또 말하되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였다. 대답하여 「구지입니다」라고 하니, 또 가로되 「황천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이곳에 임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여 임금이 되라고 하시기에 이곳에

내려왔으니 ①너희들은 모름지기 봉우리를 파서 흙을 집으며 노래하기를 <龜何龜何 首具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라 하고 뛰고 춤추면 곧 대왕을 맞이하여 즐거워 날뿔 것이다라고 하였다. 9간들이 그 말과 같이 모두 즐거워하며 노래 부르고 춤추었다.

- ③ ①(노래하고 춤추는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러러 바라보니, 하늘에서 자색의 줄이 내려와 땅에 닿았다. 줄끝을 찾아 보았더니 홍색의 보자기 속에 金盃이 있었다. 그것을 열어 보았더니 해와 같이 둥근 황금알이 여섯 개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놀라 기뻐하면서 함께 百拜하였다.<sup>11)</sup>  
(밑줄은 필자가 그은 것임)

이상과 같은 수로왕 신화의 전반부는 그 내용으로 보아 ① 混沌 상태 ② 祓除 ③ 수로의 탄생 등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 虛頭에 설정된 혼돈의 상태는 세계나 인류, 문화의 기원을 이야기해주는 신화들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이것들이 나타나기 이전의 상황을 질서가 확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상정하는 데서 기인된 것이다.<sup>12)</sup> 이 자료도 수로왕이 탄생하여 왕위에 오르는 일련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왕권의 기원과 성립에 관한 신화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기원 신화들과 軌를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수로왕 신화는 9간들이 비록 통솔을 하고 있었지만, 나라의 이름은 물론 군신의 칭호도 가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제각기 흩어져 생활을 영위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통솔자로서의 왕을 가지지 못한 상태가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위로 군주가 없이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모두 방자해져서 제 마음대로 하니 어찌 덕 있는 사람을 찾아 군주를 삼고 나라를 세우며 도움을 정하지 아니하겠는가」<sup>13)</sup>라고 한 박혁거세 신화의 6촌장들의 회의 목적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혼란 상태는 건국주가 등장하여 나라를 세우고 질서를 확립하면 극복되기 마련이므로, 이 단락은 건국주의 탁월한 통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적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건국주의 출현은 성스러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혼란이 계속되는 속된 세계의 不淨을 물리치는 의식이 필요하게 된다. 자료 2에 있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단락②이다. 이곳에서는 우선 禊浴日을 시간적인 배경으로 택하고 있다. 계육일은 3월의 上巳日로서 중국에서는 이날

11) 開闢之後 此地未有邦國之號 亦無君臣之稱 越有我刀干·汝刀干·彼刀干·五刀干·留水干·留天干·五天干·神鬼干等九干者 是酋長 領總百姓 凡七百戶七萬五千人 多以自都山野 鑿井而飲 耕田而食 屬後漢世祖光武帝建武十八年壬寅三月禊浴之日 所居北夏官(是嶺巒之稱若十朋伏之狀 故云也) 有殊常聲氣呼喚 衆庶二三百人集會於此 有如人音 隱具形而發具音曰 此有人否 九干等云 吾徒在 又曰 吾所在爲何 對云龜旨也 又曰 皇天所以命我者 御是處 惟所家邦 爲君后 爲故故降矣 你等須掘峰頂 撮土歌之云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以之陷舞 則是迎大王 歡喜踴躍之也 九干等 如具言 咸所而歌舞 未幾仰而觀之 唯紫繩自天垂而着地 尋繩之不 乃見紅幅裏金合子 開而視之 有黃金卵 圓如日者 衆人悉皆驚喜 俱伸百拜. 일연 저, 최남선 편 : 1946, pp. 108~109.

12) 大林太良 : 1966, pp. 68~128 참조.

Von Franz, M.L ; 1972, pp. 5~19 참조.

13) 我輩上無君主 臨理蒸民 民皆放遊 自從所欲 蓋寬有德人 爲之君主 劫邦設都乎. 일연 저, 최남선 편 : 1946, p. 44.

洛陽의 東川에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구하는 행사가 벌어졌었다고 한다.<sup>14)</sup> 가락국의 禊事도 일단은 이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제육일 그 자체는 신춘의 예축제와 결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속(profane)에서 성(sacred)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날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간적인 배경이 된 구지봉은, 구지에 대하여 여러가지 해석이 있어왔지만, 그 중에서 <굿>으로 새겨 큰 굿, 곧 큰 제례가 거행되던 봉우리였다는 견해<sup>15)</sup>를 취한다면, 불제의 의식을 치르기에는 안성마춤의 장소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배경 아래서 수로를 맞이하는 <맞이굿><sup>16)</sup>을 하는 데는 부정과 잡신을 물리치는 불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맛이에 앞서 불제가 행해지는 것이 맞이굿의 일반적인 형태라는 점<sup>17)</sup>을 고려한다면, 이 단락에서 수로의 가르침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불렀다고 하는 <龜旨歌>는 굿을 할 때에 부르는 巫歌의 일종으로, 잡신을 몰아내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지가에 대한 종래의 연구는 「거북아 거북아 네 목을 내여라. 네 목을 내잖으면 구워서 먹으리」라고 해석하여, 이 노래를 迎神歌 내지는 迎神君歌로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어왔다.<sup>18)</sup>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로와 같은 절대적인 존재(Supreme Being)를 맞이하는 데 이와 같은 위협적인 呪術謠가 불리워졌다는 사례를 찾아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사례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글자의 뜻에만 너무 집착한 해석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어떤 설화 속에 들어 있는 시가의 해석이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이런 의미에서 구지가의 해석도 수로왕 신화의 전체적인 문맥을 자세히 음미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하여 신화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에서 많은 사람들이 봉우리를 파서 흙을 집으며 구지가를 부르는 행위는, ㉡에서 수로를 비롯한 6가야의 시조들이 알의 형태로 태어나는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龜>자가 <검·굽>의 향찰로서 잡신을 뜻한다는 박지홍의 연구 성과<sup>19)</sup>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首>를 먼저(首先)라는 부사로 보고, 또 <現>은 <出>과 의미

14) 三品彰英 : 1979, pp. 318~319.

15) 金錫亨, 朝鮮史研究會譯 : 1969, p. 136.

김택규 : 1980, pp. 213~215.

유귀수(70세, 김해시 구산 1동 거주)의 말에 따르면, 구산 1동의 정씨들은 얼마 전까지 구지산 발치에서 동제를 지냈다고 한다(1988, 7. 28 조사). 이것을 보면 구지산이 일찍부터 제의의 장소로 이용되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6) 김영일도 이것을 <신맞이굿>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영일 : 1987, p. 16.

17) 현용준 : 1986, p. 251.

18) 이병기, 백철 : 1963, pp. 42~43.

19) 박지홍 : 1957, p. 532~533.

가 통하고 <出>은 退出의 뜻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노래를 <검하 검하, 먼저 (빨리) 물러가거라. 만약 물러가지 않으면 굶고 구워서 먹으리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면 구지가는 잡신들을 물리치는 위협적인 逐鬼誑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단락은 신성성을 지닌 수로의 탄강에 앞서 부정과 잡신을 제거하는 불제의 의식이 거행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부정과 잡신을 물리쳐서 신성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왕위에 오를 수로의 탄강을 서술하는 곳이 단락 ③이다. 여기에서는 수로가 홍색의 보자기에 쌓인 금합 속에 들어 다른 다섯 개의 알들과 함께 황금알의 형태로 자색의 줄을 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수로의 탄생담은 고대인들의 세계관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류 역사의 초기의 기록들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신과 지상에서의 그의 대리자인 왕을 동시에 숭배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하지만 현재까지의 지식으로는 신에의 숭배가 왕에의 숭배보다 선행되었다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 아마 어떠한 왕도 신이 없이는 존재하지 못했고, 또 어떠한 신도 왕이 없이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를 든다면, 고대 이집트에서 왕을 신과 동일시하는 군주제의 관념이 있었다든지, 슈메르(Sumer)의 도시 국가들에서 왕들을 신이 보낸 구세주로서 신들의 대리자라고 믿고 있었던 것, 그리고 히타이트족(Hittite)들은 왕을 항상 태양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 등은 이와 같은 고대인들의 왕에 대한 신앙을 말해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sup>20)</sup>

이러한 그들의 의식 구조는 왕들의 출지(descent)를 태양에서 구하는 많은 신화들을 만들어냈다. 이를테면 현장(玄奘: Hiuen Tsiang)이 기록한 다음과 같은 신화도 그 대표적인 예화의 하나이다.

### [자 료 3]

이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漢나라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다. 그녀는 한나라에서부터 주옥 호위를 받아왔다. 그때 반란이 일어나서 동서를 연결하는 길이 폐쇄되어 버렸다. 그 때문에 그들은 그녀를 아주 높고 위험한, 외따른 산봉우리에 데려다 놓았다. 거기는 사다리에 의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경비를 썼다. 3개월 후에 혼란은 진압되었다. 평온을 되찾았으므로 (페르시아어로의) 여행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때에 그들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중략……몸종이 사신에게 말했다.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그녀를 임신시킨 것은 정령(spirit)입니다. 매일 정오에 태양의 표면으로부터 수장(chief-master)이 말을 타고 그녀를 만나러 왔읍니다.」……중략……때가 되자 그녀는 대단히 아름다우면서도 모든 재능을 다 갖춘 아이를 낳았다. ……중략……그는 하늘을 날고 바람과 눈을 제어할 수 있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자손들은 어머니 쪽에서 한나라 황실의 혈통을, 아버지 쪽에서는 태양신(sungod)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다.<sup>21)</sup>

(말줄은 필자가 그은 것임)

20) A.M. Hocart : 1927, pp. 7~8.

21) A.M. Hocart ; 1927, pp. 18~19 재인용.

이것은 부계의 출지를 태양에서 찾고 있는 자료이지만, 이렇게 출지를 태양 내지는 하늘에서 구함으로써 왕의 신격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한국의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었다. 桓因의 아들 桓雄이 인간 세상을 탐내어 神檀樹 밑에 내려와 神市를 베풀다가 용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단군 신화와, 천제의 아들 解慕漱가 내려와서 복부여를 다스렸다는 해모수 신화는 왕들의 출지를 하늘에서 찾고 있는 것들이고, 햇빛의 감응에 의해 알로 탄생했다고 하는 주몽 신화<sup>22)</sup>는 왕의 출지를 태양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홍색의 보자기에 쌓인 금합 속에 들어 황금알의 형태로 자색의 줄을 타고 내려온 수로도 후자의 예에 속한다고 하겠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제시된 자색이나 홍색이 태양에서 연원된 색깔이고<sup>23)</sup> 금합이나 해와 같이 둥근 황금알 역시 태양을 표상하는 것<sup>24)</sup>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로의 출지를 태양에서 구한다면, 그는 태양신의 신격을 갖추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대인들의 이런 신앙은 태양신이 자료의 밑줄 친 부분에서와 같이 자연을 제어하는 힘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종족들에게 어떤 규칙성을 부여하고 토지와 사람들에게 결실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믿음에서 유래된 것<sup>25)</sup>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로의 경우도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 32. 즉위 의례

그러나 수로가 비록 탁월한 능력의 신격을 갖추고 탄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신격은 잠재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Pharaoh)가 될 사람은 신으로 태어나지만, 출생에서 즉위시까지의 기간에는 반드시 그의 절대적인 신성성을 잃었다고 한다.<sup>26)</sup> 이렇게 상실된 생래적인 신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왕위에 오르는 일정한 즉위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그런데 실제로 즉위 의례에 들어가면 대관식을 가지기 전에 왕이나 추장이 될 인물은 의례적인 싸움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sup>27)</sup> 그리하여 그는 주술에 의해서나 무기에 의한 싸움을 통하여 승리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수로왕 신화에 있어서는 이 단락이 탈락되어 있고, 그 대신에 그의 치적을 적은 왕력편 속에 의례적인 다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탈해와의 싸움을 다룬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sup>28)</sup> 이

22) 魏收: 1976, p. 570.

23) A.M. Hocart: 1927, p. 123.

24) A.M. Hocart: 1927, p. 80.

25) A.M. Hocart: 1927, pp. 55~56.

26) A. van Genep: 1960, p. 111.

27) 즉위 의례에서 왕을 승리자로 만들기 위한 의례적인 싸움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다.

A.M. Hocart: 1927, pp. 99~112 참조.

28) 수로와 탈해의 다름에 대하여 김영일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면에서 해석하려고 하였다.

러한 체제상의 변화는, 즉위 의례의 형태로 전승되어 오던 것을 가락국의 건국 신화로 정착시키면서 수로의 치적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순서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 우선 수로의 의례적인 승리를 표현하고 있는 단락의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자 료 4]

갑자기 완하국 합달왕의 부인이 아기를 배어 달이 차매 알을 낳으니 그 알이 화해서 사람이 되어 이름을 탈해라고 했는데, (그가) 바다를 좇아서(가락국)에 왔다. (그는) 키가 세 자나 되고 머리의 둘레가 한 자나 되었다. (그는) 기꺼이 대궐로 나아가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왔소」라고 하니, 왕이 대답하기를 ㉡「하늘이 나에게 명해서 왕위에 오르게 한 것은 장차 나라안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 함이니, 감히 하늘의 명을 어기면서 왕위를 줄 수도 없고 또 감히 우리 나라 백성들을 너에게 맡길 수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탈해가 「그렇다면 술법으로 당신과 겨루는 것이 어떻겠소」라고 하니 수로가 좋다고 하였다. ㉢「잠깐 사이에 탈해가 변해서 매가 되니 왕은 변해서 독수리가 되고, 또 탈해가 변해서 참새가 되니 왕은 변해서 새매가 되는데, 이 때에 일순의 간극도 걸리지 않았다. 탈해가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오자, 왕도 또한 그렇게 하였다. 탈해가 이에 항복하면서 ㉣「제가 술법을 다루는 마당에 있어 매가 독수리에게 참새가 새매에게 잡히기를 면한 것은 대개 성인께서 죽이기를 미워하는 어진 마음을 가진 때문입니다. 제가 왕과 더불어 왕위를 다툴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문득 왕께 하직하고 나가서 가까운 나룻터에 이르러 중국의 선박들이 항해해 오던 해로를 취하여 가려고 했다. 왕은 그가 머물러 있으면서 반란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급히 수군 오백 척을 보내서 쫓게 하니, 탈해가 제립의 땅 안으로 달아나므로 수군은 모두 돌아왔다.<sup>29)</sup> (밑줄은 필자가 그은 것임)

이 자료가 어떤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탈해가 왕권의 다툼을 전제로 하여 등장하고, ㉡에서의 싸움이 변신술에 의한 것이었으며, 또 전체의 문맥이 수로의 왕권 강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즉위 의례에서 행해지던 의례적인 싸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렇다면 이 의례적인 싸움이 무엇을 반영하고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에서 승리자로 등장하는 수로는, 이미 자료 2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태양의 신격을 갖추고 탄생한 존재였다. 한국의 고대 사회에서 태양은 하늘의 원리를 표상하는 것이었고

① 완벽한 신화적 서사와 그 논리를 위한 기술 때문이다.

② 역사적인 사실의 신화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있다.

김영일 : 1987, pp. 22~23.

한편, 이강옥은 이것을 수로가 왕이 되고난 다음의 시련으로 보았다.

이강옥 : 1987, p. 156.

29) 忽有皖夏國舍達王之夫人妊娠 彌月生卵 爲化人 名曰脫解 從海而來 身長三尺 頭圍一尺 悅焉詣闕 語於王云 我欲奪王之位故來耳 王答曰 天命我俾即于位 將令安中國而綏下民 不數違天之命 以與之位 又不散以吾國吾民付囑於汝 解云 若爾可爭其術 王曰可也 俄頃之間 解化爲鷹 王化爲鷲 又解化爲雀 王化爲鷓 于此際也 寸陰未移 解還本身 王亦復然 解仍伏膺曰 僕也適於角逐之場 鷹之鷲 雀之於鷓 獲免焉 此蓋聖人惡殺之仁而爲乎 僕之與王 爭位良難 便拜辭而出 到隣郊外渡頭 將中朝來泊之水道而行 王竊恐滯留謀亂 急發舟師五百艘而追之 解奔入雞林地界 舟師盡還. 일연 저, 최남선 편 : 1946, p. 110.

또 이 원리를 신봉하던 집단은 수렵 문화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sup>30)</sup>

한편 敗者로 등장하는 탈해의 경우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그가 어떠한 우주 영역을 대표하고 있던 존재였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리하여 일연이 가락국기에서 「여기에 실린 기사는 신라의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하였지만, 《三國遺事》紀異篇의 脫解王條의 기록에 의하면 그를 최초로 발견하고 길러준 阿珍義先이란 老嫗가 박 혁거세 때에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고 살던 할머니였고<sup>31)</sup>, 또 《三國史記》신라본기 권1 탈해이사금조에 「탈해는 맨처음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아 그 노모를 공양하는 데 조금도 게을리하는 기색이 없었다」<sup>32)</sup>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漁撈를 주업으로 하던 집단의 일원이었고, 나아가서는 수역의 원리를 대표하던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로와 탈해의 변신술에 의한 다툼에서 전자가 승리를 하였다는 것은, 하늘의 원리를 신봉하던 수렵 문화를 가진 집단이 수역의 원리를 믿으면서 어로 문화를 소유하고 있던 집단을 정복하였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sup>33)</sup> 그리고 이러한 우주관을 반영하는 이들의 싸움이 수로를 승리자로 등장시키기 위해서 의례적인 다툼의 과정에 차용된 것은, 밑줄 친 ㉠과 ㉡부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통치권(dominion)과 종주권(sovereignty)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의로운 행위를 행하여 통치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왕의 정의(king's justice)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었던가 한다.

어쨌든 이와 같이 하여 왕의 통치권과 종주권, 정의의 확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의례적인 다툼을 통해 승리자로 등장한 수로는 왕위에 오르게 된다. 이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수로왕 신화의 후반부이므로, 그 내용을 개관하기로 하겠다.

[자 료 5]

- ①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알들을) 보자기에 싸들고 아도간의 집으로 가서 榻에 놓아두고 무리들은 제각기 흩어졌다.
- ② 하루가 지나 이튿날 아침에 여럿이 다시 모여 합을 여니 여섯 개의 알이 동자가 되어 있었는데, 용모가 매우 빼어났다. 이에 床에 앉힌 다음, 무리들은 절하고 치하하며 공경을 다해 모셨다. (사내 아이들은) 날마다 자라시 십여 일이 지나자 신장이 9척이나 되는 것은 은나라의 天乙과 같았

30) 김화경 : 1984, pp. 4~5

31) 時浦邊有一嫗 名阿珍義先 乃赫居王海尺之母  
일연 저, 최남선 편 : 1946, p. 47.

32) 脫解始以漁釣爲業 供養其母 未嘗有懈色  
김부식 : 1969, p. 6.

33) 김화경 : 1983, pp. 124~140.

34) 尋還襄著 抱持而歸我刀家 寘榻上 其衆各散 過泐辰 翌日平明 衆庶復相聚集開合 而六卵化爲童子 容貌甚偉 仍坐於床 衆庶拜賀 盡恭敬止 日日而大 踰十餘晨昏 身長九尺則殷之天乙 顏如龍焉則漢之高祖眉之八彩則有唐之高 眼之重瞳則有虞之舜 具於月望日即位也 始現故諱首露 或云首陵(首陵是崩後諡也) 國稱大駕洛 又稱伽耶國 即六伽耶之一也 餘五人各歸五伽耶王.  
일연 저, 최남선 편 ; 1946, p. 109.

고, 얼굴이 용과 같은것은 곧 한 나라의 고조였다. (그리고) 눈썹이 여덟 가지 색깔인 것은 당나라의 고조와 같았고, 눈의 동자가 돌씩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舜帝와 같았다.

③ 그 달 보름날에 즉위하였는데,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講를 수로라고 하고, 혹은 수릉(수릉은 봉어한 뒤의 시호이다)이라고도 하였으며, 나라를 대가락이라 하고 또 가야국이라고도 일컬으니, 곧 6가야의 하나다. 남은 다섯 사람들도 제각기 돌아가서 5가야의 임금이 되었다.<sup>35)</sup>

이상과 같은 자료 5는 단락③의 내용으로 보아 즉위 의례의 진행 과정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것같지만, 단락②와 ③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민족학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는 상호 해명법(*wechselseitige Erhellung*), 곧 계통적으로 관계가 있는, 또는 형태와 구조가 유사한 둘 또는 그 이상의 현상을 비교함으로써 하나만 가지고 고찰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의미와 구조를 밝히는 방법론<sup>35)</sup>을 원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 해명법을 원용하기 위해서는 자료 5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신화나 의례를 찾아내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와 같은 자료를 왕의 즉위 의례인 일본의 다이조우사이(大嘗祭)와 요나라의 柴册儀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이 두 나라들의 문화는 한국의 문화와 계통적으로도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두 개의 자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일본의 다이조우사이와 관련이 있는 호노니기노미코도(火瓊瓊杵尊)의 탄생담부터 별견하기로 하자.

#### [자 료 6]

이 때에 다카미무스비노미코도는 마도코오우후스마(眞床追妻)로 황손 아마쓰히코히코호노니기노미코도를 덮어싸서 지상에 내려보냈다. 황손은 이에 아마노이카구라를 떠나서 우선 위엄으로 길을 개척하여 히무카노소의 다카찌호노다케에 강림하였다. 이미 황손이 돌아다니는 모양은, 봉우리가 두 개 나란히 있는 산의 天浮橋로부터 우기지마리다히라를 거쳐 소시지의 무나구니, 히다오의 땅을 지나서 좋은 나라를 찾아 아다의 나가야노가사사노미사키에 이르렀다. 이 땅에 한 사람이 있어, 자기 스스로 고도카스구니나가쓰나가사라는 이름을 붙였다. 황손이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고 물으니, 「여기에 나라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쉬어가시기를 청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황손은 나아가 체재하였다. 이 때에 그 나라에 한 사람의 미인이 있었는데 이름을 가시쓰히메라고 불렀다. 황손이 이 미인에게 「너는 누구의 아이냐」고 묻자, 「첩은 친신이 오호야마쓰미노가미를 아내로 맞아들여 낳은 아이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황손이 거동하였는데,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임신 하였다. 황손은 이를 믿지 않고 말하기를 비록 친신이라고 할지라도 하룻밤 사이에 사람을 임신시킬 수는 없다. 네가 임신한 아이는 반드시 내 아이가 아닐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때문에 가시쓰히메는 성내고 원망하며, 출입구도 없는 산신을 만들어 그 속에 들어가 서약하기를 「첩의 임신한 것이 친손의 씨가 아니라면 반드시 타죽을 것이고, 정말로 친신의 씨일 것 같으면 불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곧 불을 부쳐 산신을 태웠다. 처음 올라간 연기 끝에서 낳은 아이를 호노스소리노미코도라부르고 다음으로 열기를 피하고 있을 때 낳은 아이를 히코호호메미노미코도라 이름지었으며, 다음에 태어난 아이를 호노아카리노미코도라 하여 합해서 세 아이였다. 이윽히 있다가 아마쓰히코히코호

35) 大林太良 : 1934, p. 323.

노니니기노미코도가 죽었다. 그래서 쓰꾸시노히무카에의 山陵에 장사지냈다.<sup>36)</sup>

이것은 天孫降臨神話의 범주에 들어가는 자료이다. 일본은 한 때 이와 같은 천손 강림 신화들을 그들의 皇國史觀을 수립하는 데 이용한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일찍부터 선진 문화를 향유하고 있던 한반도의 유민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그들의 문화 형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신화들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고대 관계사를 규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sup>37)</sup>

이러한 의미에서 호노니기노미코도가 마도코오우후스마에 싸여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이 신화의 전반부는, 이미 앞에서 고찰한 바 있는 자료의 수로의 탄생담과 어떤 역사적인 상관성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三品彰英은 이 천강 모티브를 「이것은 이불로 싸 쌀 정도로 천손이 어렸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sup>38)</sup>는 해석을 하고 있다. 신화가 어떠한 사실을 직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너무도 字意的인 해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하간 <마도코오우후스마>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해석을 그대로 원용한다면, <마(眞)>는 美稱이고 <도코오우(床追)>는 앉기도 하고 잠자리도 되는 대(台)를 덮는 것을 의미하며 <후스마(衾)>는 덮는 것, 곧 이불을 뜻한다고 한다.<sup>39)</sup> 마도코오우후스마를 이와 같이 대를 덮는 이불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자료 5의 단락①에서 아도간의 집 탐상에 알로 태어난 수장들을 다시 싸서 갖다놓는 데 이용한 보자기와 상당히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마도코오우후스마는 다이쇼우사이 때에 사용되는 이불의 원형으로 상정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折口信夫는 「다이쇼우사이 때에 유끼(悠紀)·스끼(主基) 兩殿의 가운데에는 단정하게 寢所가 설치되어 있고 자리와 이불이 마련된다. 요를 깔고, 까는 이불과 베개도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태양의 아들이 될 사람이 자격의 완성을 위해 이 침소에 틀어박혀 금기를 행하는 장소이다.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이불은, 혼이 몸에 들어가기까지 틀어박혀 있기 위한 것이다. ……중 략……부활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日本紀’의

36) 于時 高皇堂靈尊 以眞床追衾 覆於皇孫天津彥彥火瓊瓊杵尊 使降之 皇孫乃離天盤座 且排分天八重雲 稜威之道別道別而 天降於日向襲之高千穗峰矣 既而皇孫遊行之狀也者 則自德日二上天浮橋 立於浮渚在平處 而霄穴之空園 自頓丘貫國行去 到於吾田長屋笠齋之碕矣 其地有一人 自號事勝國勝長狹皇孫問曰 國在耶以不 對曰 此焉有國 請任意遊之 故皇孫就而留住 時彼國有美人 名曰鹿葦津姬 皇孫問此美人曰 汝誰之子耶 對曰 妾是天神娶大山祇神 所生兒也 皇孫因而幸之 即一夜而有娠 皇孫未信之曰 雖復天神 向能一夜之間 令人有娠乎 汝所懷者 必非我子歟 故鹿葦津姬念恨 乃作無戶室 入居其內 而誓之曰 妾所娠 若非天孫之胤 必當變滅 如實天孫之胤 火不能害 即放火燒室 始起烟末生出之見 號火闌降命 次避熱而居 生出之兒 號彥火火出見尊 次生出之兒 號火明命凡三子矣 久之天津彥彥火瓊瓊杵尊崩 因葬筑紫日向可愛之山陵  
井上光貞 校注：1967, pp. 141~143.

37) 金錫亨, 朝鮮史研究會 譯：1969, pp. 124~175.

38) 三品彰英：1971, p. 131.

39) 井上光貞 校注：1967, pp. 568~569.

神代篇을 보면, 이 이불의 일을 마도코오우후스마라고 부르고 있다. 저 니니기노미코도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는 이것을 덮어쓰고 있었다. 이 마도코오우후스마야말로 다이쇼우사이의 이불을 생각하는 단서가 되기도 하고 황태자의 금기의 생활을 생각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금기의 기간 중에 바깥의 태양을 피하기 위하여 덮어 쓰는 것이 마도코오우후스마이다. 이것을 벗길 때에 완전한 친자가 되는 것이다.<sup>40)</sup>라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折口信夫의 견해로부터 일본의 다이쇼우사이 때에 사용되는 이불은 왕이 되기 전의 금기 기간에 일상 생활과의 차단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遼나라의 시책의에서는 보자기나 이불이 아니라, 담요가 사용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그래서 이 시책의의 내용도 간단히 발견하기로 하겠다.

#### [자 료 7]

길일을 택하고 그 전에 시책전과 단을 설치한다. 단의 모양은 쉼나무를 두껍게 쌓아 나무로 세 개의 계단을 만들고 그 위에 단을 설치하여, 백척이나 되는 용무니의 네모난 담요를 깐다. 또 재생실과 모후가 보살피는 방을 설치한다. 황제가 재생실에 들어가 再生儀를 행하여 (그것이) 끝나면 8부의 장로들이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따르면서 좌우에서 황제를 보인하여 책전의 동북쪽 모서리로 가서 해에게 절한 다음에 말을 탄다. 외척들 중에서 늙은이를 선출하여 황제를 모시고 신속히 달려가 엎드리게 하면, 시종들은 담요로써 황제를 덮어 높은 언덕으로 간다. 대신들과 제부의 장수들은 도열하여 호위하면서 멀리서 바라보며 절을 한다. (그러면) 황제는 사신을 보내어 조서를 내려 가로되 「先帝가 승하하셨지만 백부와 숙부, 부형들이 있으니 마땅히 어진 사람을 고를 터인데, 어리고 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도모하겠는가」라고 한다. 군신들이 대답해서 말하기를 「신들은 선제의 厚恩과 폐하의 명덕에 모두 마음을 다할 것을 원하옵는데 감히 다른 생각을 가지겠습니까」라고 한다. 황제가 명령하여 「만드시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좇아 내가 장차 상벌을 분명하게 펴서, 너희가 공이 있으면 울려 임명하고 너희가 죄가 있으면 떨어뜨려 버릴 것이니라. 만약 짐의 명령을 들었다면 곧 마땅히 도모하도록 하라」고 말하자, 여럿이서 「예, 황제의 명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황제는 표시를 하는 곳에 흙과 돌을 쌓아 표시를 하고, 선제의 影顧에 가서 절한 다음, 군신들에게 연회를 베푈다. 이튿날 황제가 책전에서 나오면 호위하는 대보가 扶翼하여 단에 올라가 七廟의 신주들을 받들어 용무니의 네모난 깔개에 모신다. 북남부의 재상들이 군신들을 거느리고 둥글게 서서 제각기 담요의 가장자리를 들면서 찬축하고, (그것이) 끝나면 추밀사가 옥보와 옥책을 들고 들어간다. 유사가 책읽기를 마치면 추밀사가 이름을 지어 올리고, 군신들이 만세를 세 번 부른 뒤에 모두 절을 한다. (그리고) 재상들과 남북원의 대왕들, 제부의 장수들이 붉은 털과 흰 털의 양털을 각각 한 무리씩 진상한다. 황제는 옷을 갈아입고 여러 선제들의 영정에 절한 다음, 드디어 군신들에게 연회를 베푸는 데 각기 차등을 두어 하사품을 내린다.<sup>41)</sup>

40) 折口信夫 : 1975, pp. 195~196.

41) 擇吉日 前期置柴册殿及壇 壇之制 厚積薪以木爲三級 壇置其上席 百尺 龍方方茵 又置再生母后按索之室 皇帝入再生室 行再生儀畢 八部之與前導後扈 左右扶翼皇帝 册殿之東北隅 拜日畢乘馬 選外戚之老者 御皇帝疾馳仆 御者從者以覆之 皇帝詣高阜地 大臣諸部帥 列儀仗遙望以拜 皇帝遣使勅曰 先帝升遐 有伯叔父兄在 當選賢者 沖人不復 何以爲謀 群臣對曰 臣等以先帝厚恩 陛下明德 咸願盡心 敢有他圖 皇帝命曰 必從汝等所願 我將信明賞罰 爾有功涉而任之 爾有罪黜而棄之 若聽朕命 則當謨之 僉曰唯帝命是從 皇帝于所識之地 封土石以誌之 遂行 拜先帝御容 宴饗群臣 翼日皇帝出册殿 護衛大保扶翼升壇 奉七廟神主 置龍文方茵 北南府宰相 率群臣圍立 各舉龜邊 贊祝訖 樞密使奉玉寶

이 자료에서는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시종들이 황제에게 담요를 덮어씌운다. 황제는 이것을 쓴 채로 대신들과의 문답을 통하여 그들로부터 자신이 즉위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어낸다. 이러한 과정에서 황제가 담요를 덮어쓰는 것은 황제라는 신성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속된 현실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행해지는 의식적인 절차의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일본의 다이조우사이와 요나라의 시책의에 대한 해석을 원용한다면, 자료 5의 단락①에서 알의 형태로 태어난 6가야의 수장들을 다시 보자기에 싸는 것은 세속적인 세계로부터의 분리를 뜻한다는 것과, 이것을 벗기기까지의 하룻동안은 금기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위 의례에 수반되는 금기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준비 단계에 해당된다. 이 때에 왕이 될 사람은 단식을 하기도 하고 다른 금욕 생활을 영위하기도 한다. 또 의례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이방인과 죄인, 여자, 어린이들은 여기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이 의례에 대해 어떤 것을 아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sup>42)</sup> 이것을 보면, 자료5를 가지고 재구할 수 있는 가락국의 즉위 의례의 금기 기간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강구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런데 즉위 의례에서 사용되는 보자기나 이불, 담요 등이 무엇을 상징하기에 이와 같이 왕위에 오를 사람들을 세속적인 세계로부터 분리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도에서 행해졌던 즉위 의례의 일면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Sataphata Brahmana의 기록에 의하면 인도에서는 司祭가 tārpya 라는 옷을 왕에게 입힌 뒤 「당신은 중주권의 안쪽 大綱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왕을 중주권의 안쪽 대망막으로부터 태어나게 한다. 그리고 사제는 두 번째 옷을 또 왕에게 입힌 뒤에 「당신은 중주권의 바깥쪽 대망막입니다。」라고 하면서 왕을 통치권의 바깥쪽 대망막에서 태어나게 한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왕에게 외투를 걸쳐주면서 「당신은 중주권의 자궁입니다。」라고 말하고는 중주권의 자궁으로부터 왕을 태어나게 한다고 한다.<sup>43)</sup>

여기에서는 왕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 입는 옷이나 외투들이 통치권이나 중주권의 대망막과 자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자궁의 각종 薄膜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도의 경우를 참조한다면, 즉위 의례에서 사용되는 보자기나 이불, 담요 등도 자궁의 각종 막들을 상징하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왕위에 오를 사람들이 이것들 속에 들어가는 것은 재생을 전제로 한 原鄉에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玉册入. 有司讀册訖 樞密使稱尊號以進 群臣三稱萬歲 皆拜 宰相北南院大王諸部帥進縞白羊各一群  
皇帝更衣 拜諸帝御容 遂宴群臣 賜賚各有差  
楊家駱編：1973, p. 1~300.

42) A.M. Hocart : 1927, pp. 70~71.

43) A.M. Hocart : 1927, pp. 77~78.

그러나 가락국의 수로왕 신화를 비롯하여 일본의 다이조우사이, 요나라의 시책의 등에서는 이러한 원향에의 회귀가 의례적인 죽음을 나타낸다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 7의 시책의에서는 별도의 재생실을 설치하여 재생의를 행하고 있다<sup>44)</sup> 하지만 즉위 의례가 (1) 죽어서 (2) 다시 태어나는데 (3)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고<sup>45)</sup>, 이 이론은 (1) 분리(seperation)와 (2) 추이(transition), (3) 통합(incorporation)의 구조를 가진 통과 의례<sup>46)</sup>로부터 추출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향에의 회귀는 현세 속에서 유보되어 있던 생래적인 신격을 회복하고 신성한 왕권을 행사하는 신의 세계에 통합하기 위한 의례적인 죽음의 간접적인 표현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료 5는 단락①의 의례적인 죽음과 단락②의 재생, 단락③의 즉위라는 순차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러한 순차적인 구조는 왕의 즉위 의례의 이론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 신화가 즉위 의례의 구전 상관물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렇지만 즉위 의례의 구전 상관물이 기록으로 정착된 수로왕 신화에서는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것을 상징하는 물건을 수여받는다든가 그가 통치할 공간 영역을 상징적으로 순회하는 절차가 탈락되어 있고, 그 대신에 阿毘陀國에서 온 許黃玉과 성혼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음과 같은 수로왕의 치적을 기록하고 있다.

#### [자 료 8]

① 어느 날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9간들은 여러 관리의 어른인데, 그 지위와 명칭이 모두 소인이나 농부들의 칭호이니 이것은 벼슬 높은 사람의 명칭이 못된다. 만일 외국 사람들이 듣는다면 반드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리하여 아도를 고쳐서 아궁이라 하고, 여도를 고쳐서 여해, 피도를 피장, 오도를 오상이라 하고, 유수와 유천의 이름은 윗글자를 그대로 두고 아래 글자만 고쳐서 유공·유덕이라 하고 신권을 고쳐서 신도, 오천을 고쳐서 오능이라 했다. 신권의 음은 바꾸지 않고 그 훈만 신귀(臣貴)라고 고쳤다. 제림의 직제를 취해서 각간·아출간·급간의 품계를 두고, 그 아래 관리는 주나라 법과 한나라 제도를 가지고 나누어 정하니 이것은 옛것을 고쳐 새것을 취하고 관직을 나누어 설치하는 방법이다.

② 이에 비로소 나라를 다스리고 짐을 정돈하며,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니 그 교화는 엄속하지 않아도 위엄이 서고 그 정치는 엄하지 않아도 다스려졌다.<sup>47)</sup>

이것은 단락①의 제도를 정비하는 통치권의 확립과 단락②의 德治를 행하여 백성들을 승

44) 김열규도 요나라의 시책의를 재생제의로 보고 있다.

김열규 : 1975, pp. 82~83.

45) A. M. Hocart ; 1927. p. 70.

46) A. van Genep : 1960. p. 11.

47) 一日上語臣下曰 九干等俱爲庶僚之長 其位與名皆宵人野夫之號 頓非簪履職位之稱 儻化外傳聞 必有嗤笑之耻 遂改我刀爲我躬 汝刀爲汝諧 彼刀爲彼藏 五刀爲五常 留水留天之名 不動上字 改下字留功 留德神天改爲神道 五天改爲五能 神鬼之音不易 改訓爲臣貴 取雜林職儀 置角干阿叱干級干之秩 其下官僚以周判漢儀而分定之 斯所以革古鼎新設官分職之道歟 於是乎理國齊家 愛民如子 其教不瀟而威 其政不嚴而理

일연 저, 최남선 편 : 1946, pp. 112~113.

복시키는 정의의 확립을 그의 치적의 형태로 서술하고 있는 자료이다. 이와 같이 태양의 신격을 구비하고 신성왕으로 즉위한 수로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통치권과 정의의 확립 하였다는 것은, 자료 2의 단락①에서 제기되었던 혼돈의 상태를 극복하고 질서를 회복하여 코스모스의 상태로 들어감으로써, 명실 상부한 국가라는 소우주를 창조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즉위 의례의 구전 상관물인 수로왕 신화는 왕권의 기원과 성립을 이야기하는, 기원 신화적 성격을 지닌 설화였다고 할 수 있다.

#### IV. 맺 음 말

본 논문은 수로왕 신화가 즉위 의례의 구전 상관물일 것이라는 전제 아래서 출발했다. 이러한 전제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 신화가 실려 있던 <無洛國記>의 성격부터 고찰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 책은 수로묘에 보관되어 오던 제례에 관한 기록이었는데, 아니면 제례에 대한 기록과 전승되던 이야기들을 취합·정리한 책이었을 것이라는 추단을 내렸다.

그리고 이와 함께 수로묘에서 거행되던, 연중 5회에 걸친 제례의 성격도 아울러 구명하였다. 여기에서 5월의 제례는 파종제였고, 8월의 제례는 추수 감사제였는데 반해, 정월의 제례는 신라의 경우를 참조하여 예측제적인 성격이 강했고, 또 이 무렵에 신왕의 즉위 의례가 거행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로왕 신화가 의례와 관련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 다음에, 이 신화의 체제상의 특징에 착안하여 수로가 신성성을 확보하는 전반부와 왕위에 오르는 후반부로 나누어 고찰에 임했다.

수로왕 신화의 전반부는 (1) 혼돈 상태 (2) 불제 (3) 탄생의 순차적 구조로 되어 있다. 冒頭의 혼돈 상태 제시는 기원 신화가 가지는 일반적인 형태를 취한 것으로, 왕권이 확립되고 나면 자연히 극복되기 마련이므로, 하나의 복선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단락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불제의 단락에서는 수로라는 신성왕의 탄생을 앞두고 부정과 잡신을 물리치는 의식이 행해졌을 것으로 보아, 종래에 영신가 내지는 영신군가로 간주해왔던 구지를 逐鬼謠로 해석하는 만용을 부려 보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간단히 처리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의 논문을 준비할 작정임을 밝혀둔다. 또 탄생의 단락에서는 수로가 황금알의 형태로 금합 속에 들어 홍색의 보자기에 싸여 자색의 줄을 타고 탄강하였다는 데 주안점을 두어, 그가 태양의 신격을 갖추고 탄생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자색과 홍색이 태양에서 연원된 색깔이고 금합이나 황금알 역시 태양을 표상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신격을 갖추고 태어난 수로이지만, 그 신격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어

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말하자면, 생래적인 이 신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즉위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즉위 의례에서는 신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주술에 의해서나 무기에 의한 의례적인 싸움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렇지만 수로왕 신화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탈락되어 있다. 그래서 그의 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탈해와의 다툼이 변신술에 의한 싸움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통치권과 종주권, 정의의 확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이 때에 연행되던 의례적인 다툼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단 아래서 이것을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다툼에서 수로가 승리를 하였다는 것은, 하늘의 원리를 신봉하던 수렵 문화의 집단이 수역의 원리를 믿던 어로 문화의 집단을 정복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것은 그들이 정복 왕조를 세우는 과정에서 벌여졌던 하나의 역사적 경험이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은 의례화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것을, 수로를 승리자로 만들기 위한 의례적인 다툼으로 보는 것은 상당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여하간 이리하여 한 사람의 승리자로 등장한 수로는 즉위 의례의 과정에 임하게 되는데, 이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이 신화의 후반부이다. 후반부는 (1) 알들을 보자기에 다시 싸서 아도간의 집 欄上에 놓아두었다가 (2) 이튿날 이것을 벗겨보니 동자로 화해 있어 (3) 즉위를 하였다는 세계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에서 단락 (3)이 즉위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1)과 (2)의 단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 문화와 계통적으로 관계가 있는 일본과 요나라의 즉위 의례를 비교하여 이것들의 의미를 구명하는 상호 해명법을 원용하였다.

일본의 다이쥬우사이에서는 신왕에게 이불을 사용하고 요나라의 시책의에서는 이불을 덮어씌우는데, 이러한 의례적인 절차는 신왕을 세속적인 세계로부터 격리시키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또 인도왕의 즉위 의례를 참조하여 보자기나 이불, 담요 등이 결국은 자궁의 각종 박막을 표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볼 때, 신왕을 보자기로 싸는 것이나 이불이나 담요로 덮어씌우는 것은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 곧 원향에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수로왕 신화에 이 원향에의 회귀가 의례적인 죽음을 가리킨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 하지만 (1) 죽어서 (2) 다시 태어나는데 (3) 신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즉위 의례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이 신화의 단락(1)이 세속적인 세계에서의 분리를 뜻하는 의례적인 죽음을, 단락(2)가 신성왕으로서의 재생을, 단락 (3)이 왕위에 오름으로써 신들의 세계에의 통합을 나타낸다는 해석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이 신화에는 수로가 이렇게 왕위에 오른 다음에 부차적으로 행해지는 의례적인 절차들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그의 치적 속에 제도를 정비하고 덕치를 행하여

통치권과 정의를 확립했다는 기술이 있어, 전반부에서 제기되었던 혼돈의 상태를 제거하고 명실 상부한 국가라는 소우주를 창조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지금까지의 고찰을 종합하면, 수로왕 신화의 전반부는 후반부를 성립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이고, 후반부는 재생 제의에 근거를 둔 즉위 의례의 구전 상관물이었으며, 이 신화 전체는 왕권의 기원과 성립을 이야기하는 기원 신화였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일연 저, 최남선 편 : 1946, 《삼국유사》(서울, 삼중당)
2. 김부식 : 1969, 《삼국사기》(서울, 경인문화사 영인본)
3. 魏收 : 1976, 《魏書》(서울, 경인문화사 영인본)
4. 陳壽 : 1975, 《三國志》(서울, 경인문화사 영인본)
5. 楊家駱 편 : 1973, 《遼史彙編》(1) (台北, 鼎文書局)
6. 井上光貞 校注 : 1969, 《日本書紀》(上)(東京, 岩波書店)
7. 김열규 : 1975, 《한국민속과 문학연구》(서울, 일조각)
8. 김영일 : 1987, <가락국기 서사원리의 구성원리에 관한 일고찰> 《가라문화》 5(마산, 경남대가라문화연구소) pp. 5~34.
9. 김택규 : 1980, 《한국민속문예론》(서울, 일조각)
10. 김화경 : 1983, <은조신화연구> 《인문연구》 4(경산, 영남대인문과학연구소) pp. 121~144.
11. ——— : 1984, <신라전국설화의연구> 《민족문화논총》 6(경산,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pp. 1~20.
12. 박지홍 : 1957, <구지가연구> 《국어국문학》 16(서울, 국어국문학회) pp. 527~541.
13. 이병기, 백철 : 1963, 《국문학전사》(서울, 신구문화사)
14. 이병도 : 1976, 《한국고대사회연구》(서울, 박영사)
15. 이강욱 : 1987, <수로신화의 서술원리의 특수성과 그 현실적의미> 《가라문화》 5 (마산, 경남대가라문화연구소) pp. 133~170.
16. 현용준 : 1986, 《제주도무속연구》(서울, 집문당)
17. 井上秀雄 : 1978, 《朝鮮古代史序說》(東京, 寧樂社)
18. 大林太郎 : 1966, 《神話學入門》(東京, 中央公論社)
19. ——— : 1984, 《東アジアの王權神話》(東京, 弘文堂)
20. 折口信夫 : 1975, 《折口信夫全集》 3(東京, 中央公論社)
21. 金錫亨, 朝鮮史研究會譯, 1969, 《古代朝日關係史》(東京, 勁草書房)
22. 三品彰英 : 1971, 《建國神話の諸問題》(東京, 平凡社)
23. ——— : 1979, 《三國遺事考證》(中)(東京, 稿書房)
24. Dundes, A. : 1980, 《Morphology of North America Indian folktale》(Academia Scientiarum Fennica, Helsinki)
25. Eliade, M. ; 1954,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York)
26. Hocart, A.M. ; 1927, 《Kingship》(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27. Van Gennep, A. ; 1960, 《The rites of passage》(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28. von Franz, M.L. ; 《Patterns of creativity mirrored in creation myth》(Spring Publications Co, Zürich)